

#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김상배  
서울대학교

## ▣ 논문 요약 ▣

1990년대초 이래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한글은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의 MS워드를 제치고 75% 이상의 국내시장을 지켜온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제적·문화적 상징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들어 경영난에 봉착한 '한글과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주력사업이었던 아래아한글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자,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심하게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 아래아한글을 살리기 위한 거국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글은 1998년 6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발생했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을 정보화 시대 한글민족주의의 사례로서 개념화하고, 그 이면에

존재했던 정치경제학적 동학을 분석하였다. 우선, 이 글은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장래에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보산업 분야의 전략적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이 글은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표면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래아한글이 좌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했던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한국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제도적 환경을 제공했던,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과 지적재산권 레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 주제어: 한글민족주의, 소프트웨어산업,  
한글코드, 표준화, 지적재산권

## I. 머리말

1998년 6월 15일, 한글과 컴퓨터(이하 한컴)의 이찬진 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 회사의 지분 19%를 매각하는 대신에 주력사업인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의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두 회사간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한컴이 아래아한글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MS가 1,000~2,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이후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정확한 투자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MS는 한컴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MS의 한컴에 대한 투자의 주된 목적이 아래아한글의 후속 버전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계약조건이었다. 이로써 1989년 탄생하여 국내 워드프로세서시장에서 누적 시장점유율 약 75%를 자랑하면서 터줏대감으로서의 지위를 꿋꿋하게 지켜온 아래아한글이 함락되는

순간이었다(전자신문 1998/06/16).<sup>1)</sup>

이러한 계약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국내의 아래아한글 사용자들은 발끈했고,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아래아한글을 살리기 위한 거국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조직화되었으며, 소위 '아래아한글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가 정식으로 발족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한컴을 위기로 몰고 간 주요요인의 하나로 지목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정품구매운동도 일어났다. 결국 이러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전개된 지 한 달여 만에 한컴은 운동본부가 제시한 투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MS와의 계약을 포기한다는 뜻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특기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ims 1999).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MS의 공세를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나서서 막아냈다는 점에서 그리하였고, 운동의 기저에 깔려 있던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서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였다. 당시 아래아한글의 몰락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더 나아가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상징인 한글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아래아한글은 한글의 창제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 국산 워드프로세서이며 한글공동체 전체의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컴이나 아래아한글을 살리는 것은 곧 한글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는 이른바 '한글민족주의'의 정서가 표출되었다.<sup>2)</sup>

그러나 이 사건은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그 배경으로 깔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죽어가던 아래아한글의 숨을 잠깐 돌려놓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운동본부가 기껏 노력해서 살려놓은 아래아한글의 운명은 그 정치경제적 구조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래아한글 사태 이후 4년이 경과된 2002년 하반기의 시점에서 볼 때, 후속 버전을 제대로 내지 못한 아래아한글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제 워드프로세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의 한컴의 가치는 사라지고 주식시장에서조차도 한컴은 인터넷비즈니스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당시에는 일견 성공한 것으로 보였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 한국갤럽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 아래아한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8.2%(1997년), 75.7%(1998년), 71.0%(1999년)에 달한다. 같은 기간의 MS워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6.7%(1997년), 14.3%(1998년), 18.0%(1999년)이며, 기타 워드프로세서가 15.1%(1997년), 10.0%(1998년), 11.0%(1999년)에 달하고 있다.

2) 서구의 역사를 보면,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과정에서 국어(國語)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정체성의 통합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국민국가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민족주의(nationalism)가 구현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언어민족주의(linguistic nationalism)'의 개념과 서구적 기원에 대해서는 Anderson(1983)과 Deibert(1997) 등을 참조하면 유용하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민족주의적 성향을 '한글민족주의'로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요컨대,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독립신문』의 창간과 '한글전용운동'의 전개 등을 거치면서 성숙되어온 한글민족주의 운동의 발로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유일하게 MS워드를 제치고 국내시장을 지켜온 아래아한글의 운명을 결정한 정치경제적 동학의 구조적 실체는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구조의 힘에 맞섰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장래에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뒷받침했던 정부의 정책과 제도적 조건은 무슨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가? 이 글은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소프트웨어산업 내지는 정보산업 분야의 전략적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이론적 분석틀로써 소프트웨어산업과 한국사회의 저류에 흐르는 세 변수, 즉 관념(ideas)과 이익(interests) 및 제도(institutions) 등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sup>3)</sup>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아래아한글의 사례는 국내 워드프로세서시장에서 MS와 한컴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벌인 기술표준경쟁으로서 파악된다. 특히 한글코드의 사실상(*de facto*) 표준과 컴퓨터 운영체계(operating system, 이하 OS)의 환경변화라는 차원에서, MS에 의해 행사되던 구조적 지배에 아래아한글이 좌절하는 과정이었다.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이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적재산권 레짐 등과 같은 '제도'의 변수도 이러한 아래아한글의 좌절을 조장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MS의 구조적 공세를 유예하고 일시적으로나마 아래아한글을 살렸던 것은, 다름 아닌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표상했던 '관념'이었던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글에서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로서 파악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 그 자체의 논리와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논의를 풀어가고자 한다.

## II.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관념과 전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한국의 컴퓨터산업 내지는 소프트웨어산업에 한글민족주의의 정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0~90년대에 걸쳐서 아래아한글은 한컴 소유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을 장악한 MS에 대항해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국민경제적 재산으로서 부각되었다. 게다가 아래아한글을 한국문화의 상징인 한글 자체와 동일시하는 경향마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한글을 구현하는 워드프로세서는 한국의 토종 기업이 담당해야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컴과 아래아한글의 성장사를 살펴보면, 한컴 자신이 나서서 이러한 한글민족주의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다.<sup>4)</sup>

3) 이 글은 정치경제학에서의 기존의 제도주의적 논의들이 기반으로 하였던 '이익'과 '제도'의 두 변수뿐만 아니라 '관념'이라고 하는 변수를 포함하여 정치경제를 보는 새로운 제도주의적 분석틀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존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choice institutionalism)'나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와 구별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이론적 분석틀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라고 할 수 있다(Thelen and Steinmo 1992; Leander 2000; 김상배 2001a, 2002a, 2002b).

4) MS 관계자와의 인터뷰.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MS와 한컴간에 체결된 계약이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당시 한국의 언론들은 MS와 한컴간의 계약을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위기,”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국치의 날,”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사망선고,” “언어 속국임을 자인하는 일”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 언사를 구사하면서 보도하고 있었다(전자신문 1998/06/17; 정은아 1998c). 특히, 아래아한글 사용자, 소프트웨어 업계, 용산전자상가 등과 같은 유통업체, 시민단체, 학회,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한컴 사태에 대한 저항적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여론은 곧 구체적인 운동의 형태로 비화되었다.

예를 들어, 하이텔, 나우누리, 두루넷, 천리안 등 국내 주요 PC통신의 네티즌들이 나서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협의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한글학회 및 기타 한글 관련 단체들이 나서서 ‘한글문화지키기총연합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발표하였다(전자신문 1998/06/25). 이러한 대항의 움직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벤처기업협회가 앞장서서 벌였던 ‘1인당 1만원내기 운동’ 또는 ‘국민주모금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아래아한글살리기국민운동본부’의 결성이라는 형태로 결집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민서명운동을 벌여서 불과 열흘 사이에 1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한정호 1998b). 당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전개과정 (1998년 6-7월)

6. 15	한컴(대표 이찬진)은 아래아한글사업의 포기조건으로 MS로부터 1,000~2,000만 달러 유치 계약 추진 발표
6. 16	하이텔 등 4대 PC통신의 네티즌이 주도가 되어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 확산
6. 19	한국벤처기업협회(회장 이민화), 한컴을 살리기 위한 1인당 1만원내기 운동 전개 발표
6. 21	공정거래위원회, 한컴과 MS간 투자계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조사 착수 발표
6. 22	벤처기업협회,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 결성 및 국민주운동 전개 선언
6. 24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이민화)를 중심으로 운동의 주체 통합
6. 25	(주)나모인터넷티브, 나눔기술 등이 아래아한글 개발 중단을 전제로 대체상품 ‘나모한글’(가칭) 개발 추진 선언
7. 6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 한컴에 MS와의 투자협상 중단 촉구 및 한컴 인수를 제의
7. 20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본부의 한컴 인수 합의

운동본부 측은 당시 아래아한글 옹호의 근거로 아래아한글은 사회경제적으로만 보아도 최소한 1조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래아한글이 사라질 경우, 4백만 사용자들의 재교육에 4,000억 원 (400만 명×10시간×10,000원), 약 10억 건의 정부 공공문서를 MS워드로 대체하는 데에도 최소한 1,000억 원 (10억 건×100원), 아래아한글을 대체하는 신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향후 5년간 5,000억 원 (1000만 카피×50,000원)이 든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운동본부 측은 MS에 의한 한글 워드프로세서시장의 지배가 국내 소프트웨어시장 전체에 대한 지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요컨대, 아래아한글 포기를 전제로 한 MS의 한컴에 대한 투자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글 워드프로세서 사용자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계약이라는 것이었다.<sup>5)</sup>

운동이 진행되면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주체는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하는 운동본부로 통합되었지만, 아래아한글의 장래와 대안 등과 관련해서는 토론이 진행되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입장들이 표출되었다. 먼저, 벤처기업협회 주도의 운동본부 측에서 개진한 주장으로 국민주 모금운동을 통한 한컴의 회생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컴과 같은 시장성 있는 벤처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아래아한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정부측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아래아한글 포기는 고어처리를 포함한 한글구현에 커다란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국어생활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전자신문 1998/06/24).

둘째, 한국소프트웨어컨소시엄 등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아래아한글을 살리는 것과 한컴의 명맥을 잇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서 인식하는 입장이었다. 주로 아래아한글 개발에 관여했던 개발사들과 아래아한글 기반 그룹웨어 업체들이 주축이 된 소위 아래아한글맥잇기운동측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MS와 한컴의 계약으로 아래아한글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아한글을 뒤잇는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키자고 주장하였다. 정부측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였던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아래아한글 사태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시 말해, MS와 한컴의 계약은 민간사업자들간의 문제이며, 이 계약을 통해 아래아한글이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경쟁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전자신문 1998/06/22).

끝으로, 열린한글 프로젝트 등에서 주장한 입장으로서 아래아한글을 공공재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었다. 정보연대와 같은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주장한 바와 같이, 아래아한글의 소스코드(source code)를 공개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이며 벤처기업가로 유명했던 안철수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선택은 정부 주도하에 MS로부터 한글의 소스프로그램을 인수해서 정부 산하 소프트웨어 연구소에서 개발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개발방향은 다른 제품과 경쟁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능만 추가하고 대부분의 노력을 버그해결과 새로운 유통체계에 맞게 바꾸는 정도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문화일보 1998/06/20).

5) 한겨례신문 · 진보네트워크 · 서울 YMCA 주최 「아래아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벤처기업협회 김선흥의 발표문(1998. 7), [http://www.hani.co.kr/special/hangultoron9807/b\\_venture.html](http://www.hani.co.kr/special/hangultoron9807/b_venture.html) (검색일: 2002. 11. 30).

아래아한글 사태의 진전은 결국 한컴이 MS의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운동본부 측의 제안을 수용하여 아래아한글을 살리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한컴 측에서 보면, 운동본부 측이 100억 원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주 모금운동과 1인당 1만원내기 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컴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민기업’ 형태로 다시 발돋움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득실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에 의해서 모금된 자금과 지원보다 더욱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당시의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주는 중압감이었을 것이다. 아래아한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성장해온 한컴이 국내여론을 무시하여 사용자 기반을 잃은 상황에서는 향후 어떠한 다른 사업을 모색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정은아 1998d).

당시 이러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한국 소프트웨어업계 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사용자측에서부터 재인식되었으며,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실제로 한컴의 매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1998년 7월부터 9월 18일의 기간 동안,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되어 196업체가 적발되기도 하였다(한국일보 1998/09/25). 그러나 한컴의 입장에서는 운동본부 측의 제안을 수락하고 정부가 지원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한컴이 안고 있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아래아한글 사태 발생 이후 후속 버전을 제 때에 내지 못함으로써 MS에 시장의 주도권을 내준 아래아한글은 시장에서 점차로 외면 당하기 시작하였다. ‘한글워디안’이라는 후속 버전은 운동본부가 약속한 날짜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2000년 10월경에야 출시되었다. 한해 판매량이 100만개를 넘었고 판매 첫 한달 동안에만 20만~30만개에 이르렀던 아래아한글이었지만, 한글워디안의 첫 한달 판매량은 고작 6만여 개에 그쳤다. 이후 ‘아래아한글2002’ 버전이 나왔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한컴 사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1998년에 MS가 제시했던 조건으로 아래아한글을 인수하겠다는 기업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한컴 사태 이후 새로이 등장한 경영진은 한컴을 소프트웨어기업이 아닌 인터넷비즈니스 기업으로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1998년 당시 운동본부를 주도했던 메디슨(회장 이민화) 소유의 한컴의 지분이 싱가포르계 기업에 매각되면서 ‘국민기업’ 한컴의 경영권은 사실상 외국계로 슬그머니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한컴이 좌절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MS와 한컴간의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III. 소프트웨어 산업의 표준경쟁

#### 1. 한글코드와 한글워드프로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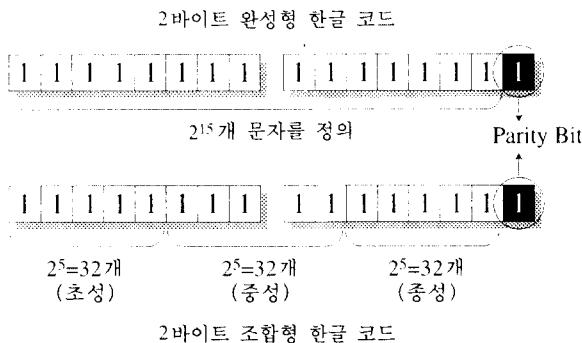
아래아한글은 1989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다니던 이찬진과 그의 동료들이 처음으로 개발했다. 당시 변변한 워드프로세서도 하나 없던 처지에 아래아한글은 사용자 위주의 편리한 기능과 유려한 글씨체 등으로 순식간에 사용자들을 사로잡았다. 개발 초기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은 이찬진은 1990년 10월에 한컴을 세워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한컴은 설립되면서부터 각광을 받았으며, 이후 급성장을 거듭하였다. 1990년 5,000만 원에 불과하던 한컴의 매출은 1991년 10억 원으로 뛰었고, 1992년 22억 원, 1993년 130억 원을 거쳐 1996년에는 221억 원을 돌파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아래아한글은 80%에 가까운 사용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각각 10%가량에 밖에 미치는 못했던 MS워드와 훈민정음을 따돌리고 국내 제일의 워드프로세서로 자리 잡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워드프로세서 제품들은 OS의 한글 자동입력 오토마타<sup>6)</sup>를 통해 한글 입출력을 구현하고 해당 응용 소프트웨어 자체 내에는 별도의 모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에 시장에 출시된 아래아한글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한글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듈 내부에 별도의 한글 자동입력 오토마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래아한글을 사용하면 한글 도스가 아닌 영문 도스 환경에서도 한글카드 등을 설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글을 자유롭게 입출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아래아한글의 이러한 특성은 그 당시 사용자들에게는 막대한 편리함을 주었으며, 한컴은 이를 잘 활용하여 아래아한글의 성공을 일구어 냈다(오창호·주영혁 2000, 106).

또한 개발 당시부터 아래아한글은 한글을 표현하고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조합형 한글코드를 채택하고 있었다. 조합형이란 2바이트 코드 내에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의 글꼴을 각각 5비트씩 할당한 코드체계로서 이러한 글꼴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다(그림 1). 예를 들어, ‘박’이란 글자의 경우, 자음 ‘ㅂ’과 모음 ‘ㅏ’ 그리고 자음 ‘ㄱ’을 각각 불러와 글자를 만든다. 이러한 방식의 특성상 조합형은 한글의 11,172자와 고어(古語)까지 모두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한글의 기본 창제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래아한글이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조합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합형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하 ISO)의 국제표준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다.

6) 키보드를 이용한 한글의 자동 모아쓰기 입력방식.

〈그림 1〉 2바이트 표준 한글코드의 비교



이에 반해, MS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시장에서 도스부터 윈도3.x, 그리고 윈도95 등에 이르기까지 완성형 방식의 한글코드를 사용하였다. 완성형은 글꼴을 미리 만들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고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이다(그림 1). 다시 말해, 완성형은 현대 한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2,350자를 코드 내에 넣어 놓고, 필요한 글자 자체를 그때그때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애초부터 2바이트 체계 내에서 완성형은 한글의 11,172자를 모두 담아서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완성형은 ISO가 정한 국제표준을 만족시킨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채택되어 쓰여 왔다.<sup>7)</sup>

사실 MS도 초창기에는 OS의 한글코드로서 조합형 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MS는 완성형을 보급하였던 당시의 국가 표준코드 정책에 순응하여 조합형을 포기하고 완성형 한글코드를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MS의 OS가 완성형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상황에서 MS워드도 당연히 완성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MS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의 관행상 MS워드의 영어판을 먼저 개발한 뒤 이를 기본으로 일어판, 한글판 등을 개발하였는데, 영어판이 애초부터 완성형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한글판도 완성형으로 개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형의 아래아한글과 완성형의 MS워드는 한국시장에서 워드프로세서라는 제품상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 한글코드를 바탕으로 한 코드경쟁도 벌였다.<sup>8)</sup> 이러한 코드경쟁의 과정을 보면, 아래아한글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체 내에 한글 자동입력 오토타마타를 가지고 OS와는 독립적으로 한글을 구현하는 조합형 방식을 고수하여 왔지만 점차로 완성형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이 한글 입력방식을 MS윈도의 한글코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완성형 한글코드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아 간 것은 구조적으로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최근의 제품인 한글워디안이나 아래

7) 완성형이 표현할 수 있는 글꼴은 2,350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폐에 ㅍ받침)시콜라' '(꺄에 ㅋ받침)' '(또에 ㅁ받침)방각하' 등 일상 문자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글자가 애초부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어 표현이 불가능하였다. 펩시콜라의 경우는 그래서 상표를 아예 '펩시콜라'로 바꾸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8) 한글코드 전문가와의 인터뷰.

아한글2002에 이르면, 한컴의 워드프로세서 제품은 유니코드를 수용하는 형태로서 완성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특히 코드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래아한글이 채택하고 있던 조합형이 완성형에 대해서 지나고 있던 장점은 점차로 회복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코드의 경우를 보면, 형식은 완성형이었지만, 현대 한글 11,172자를 연속된 공간에 모두 배정받는 형태여서, 한글의 자소를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였고, 한글고어를 조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려되어 있었다. 게다가 한자도 한·중·일 3국의 표준코드 및 비표준코드를 고려한 27,000여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글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래아한글의 한글코드가 이전에 가졌던, 한글 조합형 표현, 고어표현, 한자 15,000여자 지원 등의 특징들이 유니코드와 비교하여 볼 때 더 이상 장점이 되지 못했다. 결국 유니코드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게 되고, 많은 회사들이 이를 지원하는 추세가 형성됨에 따라 한컴 측에서도 완성형인 유니코드를 채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다.<sup>9)</sup>

요컨대, 한글 워드프로세서 분야에서의 MS의 약진은 ‘윈텔리즘(Wintelism)’으로 개념화되는, OS에 대한 MS의 구조적 지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상배 2001b; Kim and Hart 2002). MS는 OS의 장악이라는 전략적 우위에서 오는 장점을 MS오피스와 같은 자사의 응용 프로그램에 투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여갔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워드프로세서만으로는 더 이상 MS의 구조적 지배를 당해낼 수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게다가 완성형의 기술적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조합형 한글코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존재했던 아래아한글의 경쟁력은 점차로 무너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아한글은 MS의 오피스 제품군들과의 호환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는 아래아한글은 시장에서 점점 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컴이 OS환경의 변화 자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 2. OS환경변화와 한글워드프로세서

컴퓨터가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의 컴퓨터는 영문의 MS-DOS를 전면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PC이용자들에게는 컴퓨터가 매우 어려운 기기로 취급되어 보급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MS에 상당한 로열티가 지불되고 있어 PC제조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아울러 기술적으로도 개별 응용 프로그램 차원의 한글코드 지원에 비해서 OS차원의 한글코드 지원이 갖는 장점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OS를 개발하려는 모색이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1980년대 말에 있었던 K-DOS의 개발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형 OS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89년 말부터 컴퓨터연구조합을 중심으로 금성소프트웨어,

---

9) 한컴 관계자와의 인터뷰.

한국정보시스템 등은 공동으로 K-DOS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제1단계 개발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MS-DOS와의 완전 호환, OS수준에서 완벽한 한글·한자 지원, 한글 명령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1990년 말까지 추진되었다. 제2단계 개발은 다기능 지원, 리얼타이밍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 네트워크기능 지원, 보안기술 등을 목표로 1993년까지 추진되어 K-DOS 5.0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당시 개발비로는 9억 6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에서 36.5%인 3억 5천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였다. 개발을 추진한 측에서는 K-DOS가 MS-DOS를 대체함으로서 OS의 수입대체 효과를 이루고, 한글명령어의 사용으로 인해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PC업계가 MS-DOS에 익숙해져 있는 PC사용자들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K-DOS의 채택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기대와는 달리 K-DOS는 사장의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MS윈도의 도입은 K-DOS가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지게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S가 1993년부터 OS에 윈도 개념을 도입하고 윈도3.0에 MS-DOS 호환기능을 삽입하면서 1995년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윈도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특히 MS-DOS가 MS윈도를 빠우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크코드(junk code)가 필요했는데, MS가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K-DOS는 MS윈도를 구동시키지 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K-DOS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한경구 1997, 28).

비슷한 무렵 한컴의 OS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면, 점차로 윈도OS가 한글코드를 지원하는 대세에 뒤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한컴은 아래아한글의 도스 버전을 고집하였으며, 윈도 버전을 뒤늦게 출시하여 도스용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윈도용 워드프로세서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장성이 거의 없는 IBM OS/2버전 개발에 착수한 것도 한컴이 1990년대 이후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낸다. 염밀하게 말하면, 1990년대 말에 찾아온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말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즉 새로운 OS로서의 윈도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에서 MS의 제품군이 유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한컴은 도스시장에 안주하면서 윈도용 한글 워드프로세서 개발에 주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추세에 역행하는 한컴의 이러한 전략적 실수가 당시의 한국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한컴의 활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윈도3.x가 전세계 표준OS로 자리잡아 가고 있던 당시 윈도 버전의 기술적인 실패를 겪은 한컴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게 된다. '도스용 아래아한글3.0'이라는 제품이 그것인데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널리 팔렸다. 일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PC가 윈도3.x를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메모리나 하드디스크와 같은 자원들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反) MS감정이 생겨나 있던 때에, 한컴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것이었다. 윈도3.x가 DOS를 이용하여 부팅을 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DOS 없이 윈도3.x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과 함께 일반 사용자들의 PC를 손쉽게 업그레이드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한컴이 잘 활용한 것이었다.<sup>10)</sup>

10)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도스용 아래아한글3.0이 성공하게 된 배경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전산망용 PC(이하 행망용 PC)로 채택되었던 386SX 기종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윈도3.x의 OS가 원활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386DX급 이상의 PC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386SX 기종은 윈도3.x의 기능을 완전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시험용 제품이나 다름없었던 386SX 기종이 행망용PC로 채택되면서 한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래아한글 도스용 버전을 계속 행망용PC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시대에 역행하던 한컴의 도스용 제품시장이 거대하게 형성되고, 이 시기 한컴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래아한글이 순수한 한국기술로 만들어진 국내 고유의 워드프로세서라는 사실이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sup>11)</sup>

궁극적으로 OS환경의 변화와 연동되어 있었던 MS워드에 비하여 아래아한글과 같은 독자적인 개별 응용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MS는 OS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나 기술수준의 측면에서도 한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월등한 우위를 누리고 있었다. 소프트웨어시장에서 MS가 마음만 먹고 달려들면 거의 안되는 일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컴은 윈도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OS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성된 틈새시장에서의 작은 성공에 안주한 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래아한글이 국내시장을 잘 지킨 것이 오히려 신기한 일이었다. 그나마 한국은 문화적인 특성상 토종 워드프로세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 그 동안 묵시적으로나마 받아들여졌던 결과인지도 모른다(정은아 1998a, 188).

한컴은 아래아한글로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 아래아한글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아래아한글이라는 제품 하나만으로 회사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MS가 MS오피스를 앞세워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컴은 초조해졌다고 한다.<sup>12)</sup> 따라서 한컴은 인터넷서비스, 가정용 CD롬 타이틀, 마우스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출판, 유통, 컴퓨터 방문교육사업도 시작했다. 일종의 포트포리오 전략이었다. 그렇지만 한컴은 대부분의 경우 실패의 쓴맛을 보아야 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데다가 의욕만 앞세운 경영기법으로는 높은 현실의 벽을 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아래아한글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됐던 회사의 역량이 분산되면서 아래아한글 개발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스시대에서 윈도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윈도용 아래아한글 개발이 지연되었다. 1995년 3월에야 뒤늦게 출시된 윈도용 아래아한글 3.0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때부터 아래아한글의 명성은 조금씩 빛을 바래기 시작했다. 특히 주고객 층인 기업시장을 파고들지 못한 것이 결정적 실수였다고 지적된다. 한컴은 기업고객보다 관공서나 학교 등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에 안주했다. MS가 오피스 등을 내세워 기업시장을 휩쓸

11)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12) 한컴 관계자와의 인터뷰.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김종윤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멤버들이 속속 회사를 떠나고, 이찬진 사장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한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한정호 1998a). 여기에 1997년 IMF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한컴은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MS가 1998년 초부터 전국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에 수십만 개의 MS워드 시험판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공세적 마케팅을 펼치면서 한컴의 사세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박시현 1998; 정은아 1998b). 다음 절에서는 MS와 한컴, 두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아래아한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 IV. 소프트웨어산업의 정책과 제도

### 1.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1974년 처음으로 한국 공업규격 KSC 5601-1974가 제정되었으며, 뒤이어 1977년에 KSC 5714-1977이 제정되었다. 이후 1982년에 이르러 완성형 코드로 된 KSC 5619-1982와 조합형으로 된 KSC 5601-1982가 제정되었다(서현진 1997, 197-202). 이러한 코드들은 법률상(*de jure*) 표준으로서의 국가표준으로 제정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모두가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컴퓨터 제조업체는 각각의 한글코드를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글을 표현하는 데 장점이 있었던 조합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PC가 대중화되면서 한글코드간의 호환성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가중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 중심으로 한글코드의 표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 조합형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완성형보다는 조합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각각 자신의 코드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다 보니 아무런 결말도 낼 수 없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코드를 포기할 경우 이전에 판매했던 제품과의 호환성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제품판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코드를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당시 2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던 한글코드 표준화의 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형 코드를 포기하고 완성형 코드인 KSC 5601-1987 내지는 KS완성형 코드를 채택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당시 완성형을 채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성형이 ISO에서 정한 국제규격과 호환되었기 때문이었다. 완성형 코드의 채택 이후 한글코드 표준화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의 <표 2>와 같다.

우여곡절 끝에 1987년에 완성형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었어도 상당수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업체들은 계속해서 조합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국가에서 주도한 행정전산망 사업에서 KS완성형을 기본 코드로 채택하면서부터 완성형의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뒤이은 교육용 컴퓨터 보급 사업에서는 행정전산망과 호환되는 코드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제시되면서부터 본격적으

〈표 2〉 한글코드 표준화의 전개과정

1987. 3	공업진흥청이 KS 한글코드로, ISO 2022에 따른 완성형 KSC 5601-1987을 발표. 행정전산망 및 교육용PC의 기본코드로 완성형 채택
1989	MS도스 및 유닉스가 완성형 KS 한글코드를 기본코드로 채택
1990-92	문화부가 한컴에 용역을 주어 한글코드와 자판 연구를 하게 함
1992. 5	문화부가 조합형 한글 코드표준 개정안을 공업진흥청에 제출함
1992. 6	한글코드개정추진협의회는 4천1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부, 상공부, 공업진흥청, 교육부 등 관련 8개 정부기관에 한글코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청원서를 보내는 한편 개정운동을 벌임
1992. 10	공업진흥청은 1992년 5월 문화부가 제시한 조합형 코드 표준안을 바탕으로 4개월간 전문검토를 거쳐 조합형 코드 수용을 위한 한글코드 KS 규격안을 마련함
1995. 12	공업진흥청이 조합형과 완성형을 동시에 수용하는 새로운 한글코드체계 KS 5700(일명 유니코드)을 국가표준으로 제정·고시함

로 KS완성형 코드가 보급되었다. 더욱이 MS가 1989년에 이르러 도스OS에서 조합형을 포기하고 KS완성형을 지원하게 되고, 중대형 컴퓨터의 OS인 유닉스 진영에서도 KS완성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면서, 완성형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그러나 KS완성형이 표준코드로 보급되면서 오히려 한글코드 표준화와 관련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다. 1989년에 이르러서는 컴퓨터 전문잡지를 비롯하여 일간지,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서 KS완성형 코드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당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완성형이 한글의 문자체계를 모두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 주로 제기되었다. 결국 KS완성형 코드를 보완하는 개정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조합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1992년에 이르러 조합형 한글코드를 완성형과 함께 복수표준으로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표준안은 한 종류로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완성형과 조합형 두 종류를 모두 표준안으로 채택하고, 어느 쪽을 사용하든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 표준안의 골자였기 때문이다.<sup>13)</sup>

한글코드의 표준으로서 완성형과 조합형이 모두 인정되던 상황에서 1995년에 이르러 정부는 공식표준으로서 유니코드2.0도 제정하게 된다. 유니코드2.0에서 한글은 두 가지 영역으로 배정되었다. 첫 번째는 현대 한글 11,172자를 완성형 방식의 코드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들은 완성형처럼 완성된 음절을 기준으로 배정하였다. 그러나 유니코드의 완성형은 1987년의 KSC 5601 완성형 코드와는 다르게 일정한 조합 규칙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초성, 중

13) 한글코드 전문가와의 인터뷰.

성, 종성을 자소 단위로 배정한 조합형 코드로서 2바이트 상용 조합형이나 KSC 5601-1992 표준 조합형처럼 고정된 길이가 아니라 자소 개수만큼 사용하는 n-바이트 형식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유니코드2.0이 발표되자마자 정부는 이를 KS 5700이라는 이름의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게 된다.<sup>14)</sup>

한편, 한글코드의 표준이 난립하던 1995년의 상황에서 MS는 이른바 확장완성형을 제안한 바 있다. 확장완성형은 MS가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윈도95와 함께 도입되었다. 기본적으로는 KS완성형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한글 8,822자를 미사용의 코드영역에 추가로 배정한 방식이다. 조합형과의 논쟁에서 완성형이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어온 나머지 한글을 모두 표현하려는 것이 확장완성형의 취지였다.

그렇지만 확장완성형의 기술중심적 발상은 격렬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다. 정부까지 나서서 확장완성형을 채택한 윈도95를 사용거부 및 수입규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밝힐 정도였다(국민일보 1995/09/16). 그 반대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확장완성형은 한글 자모순서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확장완성형 코드는 기존의 2,350자 완성형의 틀에 8,922자의 글자를 얹지로 끼워 넣은 형태이므로 글자가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완성형과 조합형, 그리고 유니코드의 국가표준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완성형의 등장이 한글코드의 난립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새로운 제품의 시장진입을 앞두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MS가 한글 윈도95에 확장완성형을 채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부표준인 기존의 완성형 코드를 따르기로 하면서 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국민일보 1995/12/18).

한글코드의 표준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글코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단일 표준안이 신속히 나와서 복수표준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었는지도 모른다.<sup>15)</sup>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한글코드 표준안이 국제규격과 호환성을 갖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었다. 다시 말해,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은 대내적으로 단일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호환되는 표준을 채택해야 할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코드의 표준화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한글코드와 관련된 다수의 표준이 공존하는 상황을 방지한 면이 없지 않다. 그 와중에 국내시장에서는 조합형과 완성형으로 진영이 나뉘어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S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MS가 한글코드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것이다.

## 2. 지적재산권 래짐

아래아한글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각하고 반성했던 문제는 소프

14) 유니코드 관련 자료로는 다음 웹사이트의 자료를 참조. [http://www.klipl.com/info/hgcode/hgcd\\_rpt.html](http://www.klipl.com/info/hgcode/hgcd_rpt.html); <http://147.46.161.129/aorta/sub1/08/08com-1.html>

15)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트웨어 불법복제의 심각성이었다. 1998년 당시 이찬진 사장도 한컴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불법복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불법복제가 횡행하는 상황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맞선 더 이상의 승부내기는 역부족이었다 ... 해마다 30-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워낙 심해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고 토로하였다(전자신문 1998/06/16). 실제로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ssociation, 이하 BSA)<sup>16)</sup>에 따르면, 2001년 전세계 평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36%이며, 불법복제로 인해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은 약 15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내 불법복제율의 경우는 2000년 56%에서 2001년 48%로 8%정도 감소하였으나, 아직 선진국들의 20%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 손실액은 2,239억 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높은 불법복제율은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불법복제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관용, 그리고 여기서 비롯되는 느슨한 지적재산권 레짐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는 소프트웨어와 같이 ‘만질 수 없는 자산(intangible assets)’은 ‘실재(實在)’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널리 공유되는 사회적 재산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지적재산권 레짐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은 물론이다(김상배 2002b).

그런데 여기서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후발국의 지위에 있던 한국의 정부나 기업들이 이러한 느슨한 지적재산권 레짐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암묵적으로 활용하고 조장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후발국인 한국에서는 기술이전을 받거나 기술모방을 통해 선발국을 추격한다는 명목 하에 느슨한 지적재산권 레짐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에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조치는 사용자들에게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케 하는 의미를 넘어서 후발국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가 1990년대 초반 BSA가 나서서 펼친 불법복제 단속과 이에 대해서 표출되었던 한국민의 정서적 반응이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어지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체인 BSA가 창설되고, 한국에도 상륙하여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국내에서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BSA와 제휴하는 형태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불법적인 유통을 막아 건전한 소프트웨어 유통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내세운 이들 단체들은, 199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한국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단속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

16) 초기엔 이 이름을 사용하다가 후에 Business Software Alliance로 바꾸게 된다. 홈페이지 <http://www.bsa.org> 참조.

는 기관의 활동쯤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초반까지 이렇다 할만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BS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단속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BSA에 가입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한컴이 있는 정도였다.<sup>17)</sup>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부터 시작된 BSA의 대대적인 활동 강화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적재 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졌던 반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한국기업들간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불화마저 야기하면서 BSA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악화되었다.<sup>18)</sup> 급기야 한컴의 이찬진 사장도 이러한 국민적 정서에 몰려 BSA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당시 한컴이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 이유는, BSA가 한국 내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속할 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국산 소프트웨어인 아래아한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한컴의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자회견 직후 한컴은 곧바로 BSA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한컴은 자신들의 기업정체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미국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일정한 선을 그으려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한컴이 노렸던 것은 국민적 정서에 동승함으로써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고취하려는 것이었다.<sup>19)</sup>

그 이후 한국에서는 국민정서에 거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단속을 펼치려는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한컴도 무분별한 단속을 통한 불법복제의 근절보다는 소비자의 의식개선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던 것이다(오창호·주영혁 2000, 116). 그러나 불법복제에 대한 이러한 미온적 대응이 불러온 경제적 파급효과는 궁극적으로 건전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름 아닌 한컴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아한글은 국내 워드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높은 사용율을 자랑하면서도 실제 매출액은 사용율을 훨씬 밀도는 수치였다. 다시 말해, 아래아한글이 시장점유율만 높았을 뿐 정품을 구입하는 구매자는 10%도 안되었다는 것이다. 연간 30~35억 원의 워드프로세서 R&D 비용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컴이 6개월 간격으로 신제품을 내놓아야 하는 워드프로세서시장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래아한글을 포기한 것은 오히려 당연했는지도 모른다.<sup>20)</sup>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아래아한글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책임이 불법복제를 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등장했

17)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18)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

19) 한컴 관계자와의 인터뷰.

20) 물론 불법복제에 관한 한 MS나 한컴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S가 엑셀과 파워포인트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MS오피스를 가지고 불법복제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 반해, 한컴은 불법복제가 많아 실제 매출은 얼마 되지 않는 일반 소비자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인식은 구체화되어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고객 서명운동이 일어났으며 정품사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복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활동도 이루어졌다. 또한 MS의 투자가 무산된 이후에도 ‘백두대간 정품 소프트웨어 보부상’이 구성돼 전국 각지의 대학을 돌며 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뒤늦은 불법복제 근절의 운동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던 아래아한글을 되살릴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 V. 맷음말

이 글은 정보화시대 한글민족주의의 사례로서 1998년 6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발생했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을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거대한 다국적 기업인 MS의 공격적 투자에 맞서 한컴과 아래아한글을 살리려는 ‘관념’ 차원의 대응이었다. 표면적으로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MS의 투자를 철회케 함으로써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의 이면에 흐르던 정치경제적 동학으로서, MS와 한컴이 국내 워드프로세서시장에서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벌인 소프트웨어 표준경쟁의 결과를 보면, 아래아한글의 생존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MS의 OS에 대한 지배와 비대칭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컴은 OS의 한글코드 지원기능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체적인 한글코드를 구현하는 방식을 고수하였으나, 결국에는 MS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앞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제도’가 아래아한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우호적인 환경을 효과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글코드 표준화 정책이 완성형과 조합형의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을 때 국내시장은 MS의 주도로 판이 짜여가고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관행은 한컴의 존립 기반마저 뿌리째 뒤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한 차례의 국민운동을 통해서 아래아한글을 살려내기를 기대하기에는 소위 원텔리즘으로 대변되는 구조적 제약이 너무 컸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사례는, 기술·경제의 논리를 앞세운 세력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관념’ 차원의 운동이 지니는 가능성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MS의 구조적 지배에 대항하는 동력을 시장 자체의 논리 안에서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컴사태는 응용프로그램을 생산하는 후발국 기업이 OS환경을 주도하는 세력에 일대일로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보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1995년 MS의 확장완성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1998년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은 그러한 구조의 엄습을 유예하고 견제할 가능성이, 기업도 정부도 아닌, 바로 사회·문화의 논리를 대변하는 한글민족주의의 운동에서 나올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sup>21)</sup>

21) 1998년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과 매우 비슷한 형태로 등장한, 정보화시대 한글민족주의 운동의 또 다른 사례로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과 같은 운동적 대응이 현실에서 효과적인 실천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의 경우보다 더욱 더 세련된 형태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가 갖는 전략적 시사점은 일차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의 정보화전략은 단순한 운동의 ‘관념’ 차원을 넘어서 ‘이익’과 ‘제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려해서 짜여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첫째, 정보화의 영역에서 민족주의적 역량을 결집한다고 할 때 이를 분출하는 방식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운동의 초점이 특정 회사나 특정 제품을 살리려는 식으로 설정된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정보화전략을 위해 운동의 요소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한글워드프로세서 제품의 소유주가 한국기업이냐 아니냐는 식의 ‘이분법적 민족주의’는 결코 문제 해결의 궁극적 방안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이 진행될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안되었듯이, 한컴이나 MS로 하여금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공유(copyleft)’의 전략이 오히려 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책이었을 수도 있다(김상배 2002b).

둘째, 정보화시대 한글민족주의의 전략은 이른바 ‘지구화(globalization)’의 추세에도 발맞추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여야 한다. 호환성의 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기술 분야에서 ‘닫힌 민족주의’의 발상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많다. 고유한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한글의 기본원리를 가장 잘 구현하는 워드프로세서를 세계기업 중에서도 국내기업이 담당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접근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그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호환성을 유지하며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역시 한글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그 표준설정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보기술의 세계에 대한 이러한 냉철한 인식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한글민족주의의 발상은 외세에 대한 닫힌 민족주의적 거부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정보화시대의 열린 민족주의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설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경우는 기술·경제의 논리를 한 축으로 하고, 사회·문화의 논리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두 가지의 경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

는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을 들 수 있다.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2000년 12월 MS와 계약을 맺고 있는 리얼네임즈(realnames)가 한글 키워드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글 키워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국내업체인 넷피아는 리얼네임즈의 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적극 활용하면서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여나간다. 그러한 와중에서 넷피아의 주도로 인터넷주소의 한글화에 대한 운동이 촉발되고, 2002년 1월에 와서 각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태로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가 출현하면서 운동은 보다 구체화된다. 흥미로운 것은 한컴과 마찬가지로 넷피아도 이러한 운동의 기저에 깔려 있던 한글민족주의의 정서를 기업마케팅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고, 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글인터넷주소운동은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과 비교적인 차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상배 근간).

할 때, 사회적으로 지니고 있는 잠재력이 단발성으로 끝나게 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방향으로 표출 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었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조화하기보다는 대립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온 것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 1980년 대 초반 이래 한국사회 전반에서 관찰되는 특징이었다. 그러나 지구화시대를 헤쳐 나갈 효과적인 정보화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기업전략과 사회운동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정보기술의 표준화나 지적재산권 레짐 등과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경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환경을 설계하는 지혜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 1995년 (9월 16일; 12월 18일).
- 『문화일보』 1998년 (6월 20일)
- 『전자신문』 1998년 (6월 16일; 22일; 24일; 25일)
- 『한국일보』 1998년 (9월 25일)
- 김상배. 2001a.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305-30. 서울: 오름.
- \_\_\_\_\_. 2001b.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359-76.
- \_\_\_\_\_. 2002a.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략』 8집 2호, 5-27.
- \_\_\_\_\_. 2002b.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집 2호, 111-30.
- \_\_\_\_\_. 근간. “사이버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연구원 편.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여섯 가지 쟁점과 미래전략』. 서울: 한울.
- 김종윤. 1998. “‘한글’ 파동이 남긴 것 애국심만으로 시장 이길 수 없어.” 『WIN』 4권 8호, 1-8.
- 박시현. 1998. “MS, 국내 WP 시장 무차별 공략.” 『컴퓨터월드』 4월, 42-43.
- 서현진. 1997. 『처음쓰는 한국컴퓨터사』. 서울: 전자신문사.
- 오창호·주영혁. 2000. “워드프로세서의 혼들리지 않는 지배자: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도전.” 『한국마케팅저널』 2집 3호, 104-27.
- 정은아. 1998a. “MS 파상공세에 한컴 고객감동 맞대응.” 『경영과 컴퓨터』 5월, 188-89.
- \_\_\_\_\_. 1998b. “날개 부러진 토종 SW산업 백약이 무효.” 『경영과 컴퓨터』 6월, 133-49.
- \_\_\_\_\_. 1998c. “한글 포기... 허탈 분노 자성의 목소리.” 『경영과 컴퓨터』 7월, 150-57.
- \_\_\_\_\_. 1998d. “돌아온 아래아한글 거듭나기 시동.” 『경영과 컴퓨터』 8월, 158-61.
- 한경구. 1997. “세계화와 한국사회의 적응과 변화: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0집 2호, 3-52.
- 한정호. 1998a. “워드프로세서 시장만큼은 내줄 수 없다.” 『컴퓨터월드』 6월, 44-45.
- \_\_\_\_\_. 1998b. “아래아한글, 「국민 워드프로세서」로.” 『컴퓨터월드』 7월, 42-45.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Deibert, Ronald J. 1997.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Sangbae and Jeffrey A Hart. 2002.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Wintelism: A New Mode of

- Power and Governance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James N. Rosenau and J. 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143-68. Albany, NY: SUNY Press.
- Leander, Anna. 2000.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184-96. New York: Routledge.
- Sims, Calvin. 1999. "How Korean Pride Rallied to Save a Software Maker." *New York Times* (August 15).
-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n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1-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guistic Nationalism of Korea in the Information Age: Political Economy of the “Movement to Save Hangul”**

*Sangbae Kim*

Since the early 1990s, “Hangul,” the Korean-language word processing software produced by “Hangul and Computer,” had protected the Korean market against Microsoft’s Korean-language “Word” by commanding more than 75 percent of the market share. Indeed, the Koreans had regarded “Hangul” as a symbol of industrial independency and the Korean culture. Due to financial pinch in the late 1990s, however, “Hangul and Computer” decided to stop producing its word processing software in return for an investment by Microsoft. The Korean public was outraged by the news and began to mobilize a nation-wide campaign to save “Hangul.” This paper explor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dynamics of the so-called “Movement to Save Hangul” in June of 1998, conceptualized as a case of the “linguistic nationalism” of Korea in the information age.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ovement and explores the Movement’s implications for Korea’s strategies in information industries of the future. Second,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structural forces in the global software industry, which had eventually frustrated “Haugul” in spite of the early success brought by the Movement. Finally,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ment’s standardization policies for Korean character code and the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were not successful in provid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survival of “Hangul.”

## **Dialectics of Mediation: the Case of the Rise and Fall of States**

*Jong-Gook Back*

The dialectics of mediation is one of the most useful devices to understand why States rise and fall. Human beings need the mediators to improve their lives in spite of their limited capability. However, the mediators such as States tend to intensify their own subsistence rather than to serve their substantial roles. The intensification of the mediators means the alienation of the mediation from its original goals. It results in the contradiction of the self-destruction. The state as a mediator meets the same destiny as all mediators would do unless she holds up constant reforms to resist the tendency. Olson’s logic of collective action and North’s logic of agency problem could be the theoretical stepping stones to reach the theoretical conclusion.